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2.(금) 06:00 < 4.12.(금) 석간 > 배포 2023. 4. 11.(목)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업계, 알뜰업계가 선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 정유사 공급가격 및 알뜰·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 자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4.12.(금)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산업부 2차관,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3사(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제유가($/B, 브렌트유) : ('24.1월) 79.1 → (2월) 81.7 → (3월) 84.6 → (4.10일) 90.4
  국내 휘발유 가격(원/ℓ) : ('24.1월) 1,569 → (2월) 1,614 → (3월) 1,639 → (4.10일) 1,677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하여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하여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하였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키로 하였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3-5220)
		담당자	사무관	김만식 (044-203-5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1. 추진배경

□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생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기업의 역량 집중** 필요

□ 특히,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유가 안정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적극적 역할 당부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년 4월 12일(금), 10:30~11:30, 한국생산성본부

□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 등

< 회의 순서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3	(03′)	▸ 인사말	산업부 2차관
10:33~10:45	(12′)	▸ 최근 석유가격 동향	석유공사
10:45~11:00	(15′)	▸ 최근 석유가격 동향 및 조치 계획	업계
11:00~11:28	(28′)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28~11:30	(02′)	▸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